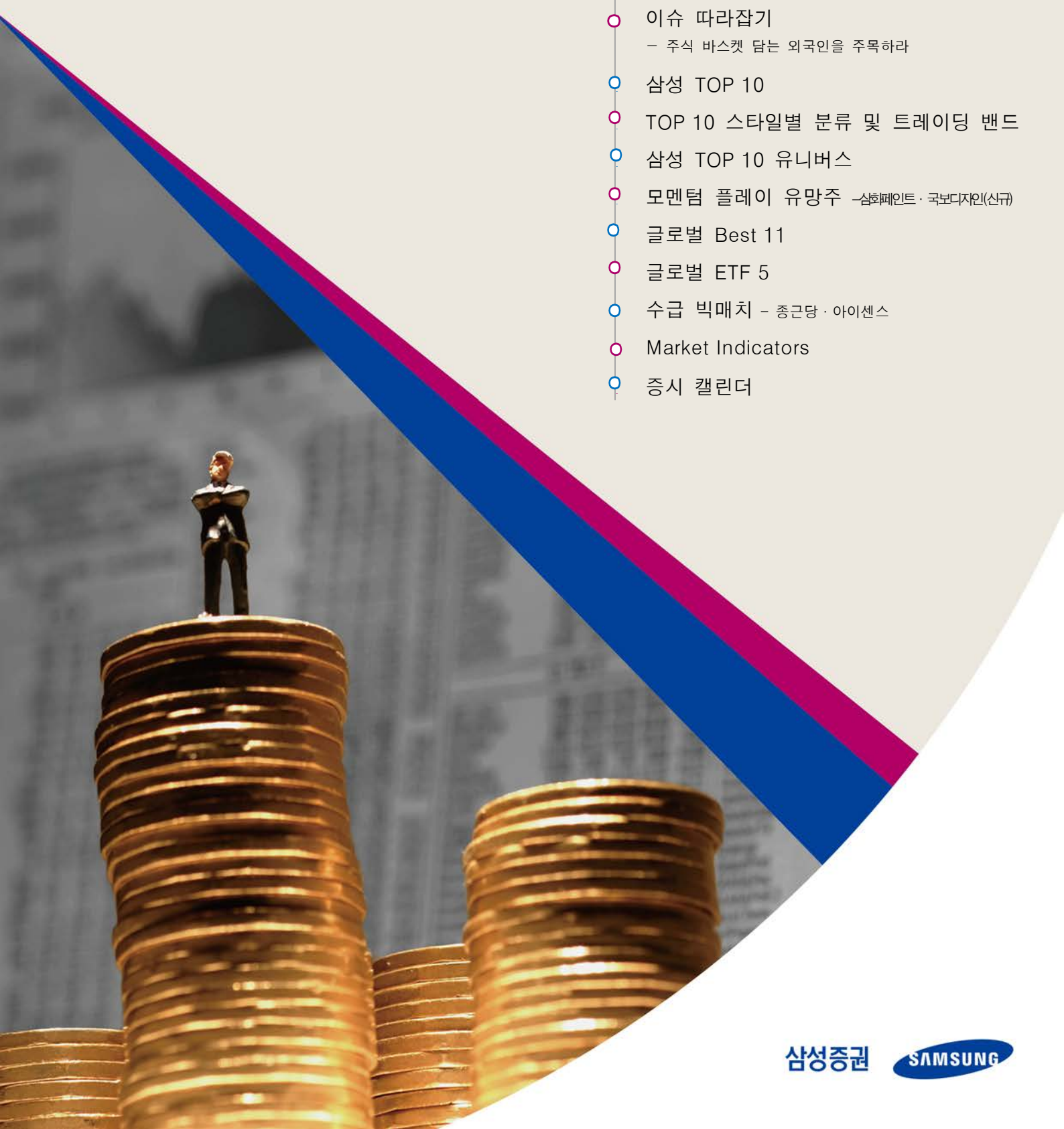


[주식전략팀]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삼성 Daily

- Daily 주요지표
- 민성현의 해외주식 이야기
 - 인터넷 IPO, 블록버스터인가 버블버스터인가?
- 이슈 따라잡기
 - 주식 바스켓 담는 외국인들 주목하라
- 삼성 TOP 10
-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 삼성 TOP 10 유니버스
-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삼화페인트·국보디자인(신규)
- 글로벌 Best 11
- 글로벌 ETF 5
- 수급 빅매치 - 종근당·아이센스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Daily 주요지표

	지표	최근값	전일대비	1일전 (%)	5일전 (%)	52주 고가	52주 저가
주식	종합주가지수	2,011.65	(3.02)	(0.15)	0.15	2,063.28	1,770.53
	거래량 (백만주)	246.89	8.84	3.71	(7.44)	483.16	168.83
	거래대금 (십억원)	4,146.95	261.66	6.73	(15.12)	6,694.45	2,224.80
	KOSDAQ지수	536.14	2.84	0.53	0.91	573.88	478.68
	거래량 (백만주)	241.91	6.38	2.71	(10.85)	743.23	214.72
	거래대금 (십억원)	1,326.22	(75.55)	(5.39)	(20.05)	2,654.17	969.37
채권	국고채 (10년)	3.32	(0.04)	(1.10)	(1.69)	3.76	3.13
	국고채 (3년)	2.79	(0.03)	(1.20)	(1.69)	3.12	2.76
	회사채 (3년 AA-)	3.21	(0.03)	(0.99)	(1.47)	3.48	3.12
	CD (91일)	2.65	0.00	0.00	0.00	2.70	2.65
외환시장*	원/달러	1,017.70	2.00	0.20	(0.53)	1,161.40	1,015.70
	엔/달러	101.99	(0.08)	0.08	0.41	105.47	93.79
	달러/유로	1.35	(0.00)	(0.12)	(1.06)	1.40	1.28
아시아증시	니케이225 (일본)	14,973.53	(95.95)	(0.64)	(0.70)	16,320.22	12,415.85
	TOPIX (일본)	1,237.75	(1.32)	(0.11)	0.41	1,308.08	1,040.31
	가권 (대만)	9,204.65	(25.15)	(0.27)	0.70	9,229.80	7,663.23
	상해종합 (중국)	2,051.71	(3.24)	(0.16)	0.53	2,270.27	1,849.65
	심천종합 (중국)	1,066.56	(2.37)	(0.22)	0.78	1,162.05	815.89
	항셡 (홍콩)	23,175.02	(82.27)	(0.35)	0.28	24,111.55	19,426.36
	H주 (홍콩)	10,431.66	(76.74)	(0.73)	0.65	11,638.27	8,640.85

참고: * 전일 17시 30분 기준

민성현

Sh0421.min@samsung.com

02 2020 7306

해외주식 이야기

인터넷 IPO, 블록버스터인가 버블버스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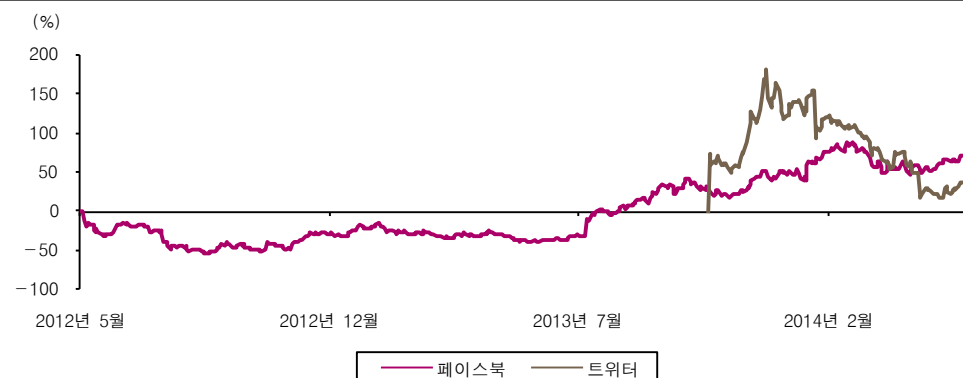
SNS 최고의 기대주 페이스북의 IPO는 2012년 당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페이스북 상장 이전에 공모주 청약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필자에게 묻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러한 열기는 2013년 트위터 IPO로 이어졌고, 2014년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신규 상장기업 투자, 신중하라! 2012년 페이스북의 공모가는 38달러였으며 5월17일 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페이스북의 주가는 불과 4개월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2013년 11월 6일 상장한 트위터는 정반대의 케이스였다. 공모가가 26달러에 확정되었고, 상장 1개월 뒤 주가가 74.73달러까지 오르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렇듯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초기투자는 이익실현의 기회도 많지만 큰 손실도 안겨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엇갈린 주가 행보 상장 이후 현재 이 두 기업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 페이스북은 상장 이후 초반의 우려와 부진을 털고, 주당 65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상승장구하고 있고, 트위터는 주당 3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는 상장 이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치를 시장에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듯, 상장된 주식이 블록버스터였는지 혹은 버블버스터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1.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상장 이후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알리바바는 블록버스터 or 버블버스터? 최근 수년 간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관심도는 페이스북 때보다도 더 높은 것 같다. 월가에서는 알리바바가 상장되면 기업가치가 1,500억달러(약 160조원) 또는 그 이상으로 라이벌 업체인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PO와 동시에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에 드는 것이다.

알리바바가 설립된 뒤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2003년만 하더라도 중국 내 이베이의 시장 점유율은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2007년 알리바바 자회사인 타오바오의 점유율이 84%로 올라서고 이베이는 8%까지 하락했다. 알리바바는 현재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 2013년 기준 알리바바의 연간 총 거래금액은 2,480억달러로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크다. 연간 활성구매자는 2억 3,100만명이며 활성구매자 1인당 49개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간 주문량은 113억건에 이르며, 중국 내 모바일 거래금액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기업이다. 이런 강점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상장 최대 IPO 기록을 알리바바가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알리바바의 대주주로는 창업자를 비롯해서 소프트뱅크와 야후가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최대를 넘어 세계 1위의 e-커머스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익구조만 개선된다면 충분히 세계 1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때처럼 알리바바 상장 초기에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진정한 가치는 상장 이후 최소 1~2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알리바바를 굳이 평가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업성장성과 독점적 위치에 높은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블버스터가 아닌 블록버스터 IPO가 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주요 인터넷 기업 IPO 이후 주가 추이

티커	종목명	국가	상장일	공모가	상장이후 주가 수익률 (%)			
					1개월	1년	5년	현재
GOOGL	구글	미국	2004.08.18	42.54	38.2	229.4	423.4	1,234.0
BIDU	바이두닷컴	미국	2005.08.04	2.70	189.0	176.8	3,040.4	6,437.4
FB	페이스북	미국	2012.05.17	38.00	(21.0)	(30.9)	—	73.1
TWTR	트위터	미국	2013.11.06	26.00	72.9	—	—	36.7
700	텐센트 홀딩스	홍콩	2004.06.16	0.83	(10.8)	43.4	2,049.4	13,839.8

참고: 6월 12일 기준

자료: Bloomberg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Issue 따라잡기

주식 바스켓 담는 외국인을 주목하라

최근 우리증시의 외국인 수급 특징은?

잇따른 외국인의 매수세로 2,000선에 안착한 증시는 최근 재차 좁은 박스권에 갇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증시 고점부근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주식형 펀드 자금 환매 기조가 우리 증시의 특징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만 약화되어도 증시 상승이 제한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국내 자금이 증시에 유의미하게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결국 하반기 증시 투자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의 한국시장 매수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우리시장을 사는 외국인의 특징을 판단하고 하반기 증시를 준비하자.

Passive > Active

최근 글로벌 주식형 펀드 동향을 살펴보면, 신흥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유입된 자금 대부분이 글로벌 신흥시장에 분산투자하는 GEM펀드 내 ETF 등 패시브 펀드로 쏠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림 1). 보통 금융시장 연구에 따르면, 금융시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시장의 경우 패시브펀드의 수익률이 액티브펀드 대비 부진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패시브펀드는 신흥국의 기대성장률이 약화된 가운데, 분산투자, 환매, 세금, 그리고 환율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그림 2).

더불어 美 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시장 예상 보다 늦어지고, 중국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며 ETF는 최근 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 빠른 신흥시장 바겐런팅의 좋은 도구가 되었다.

그림 1. GEM(신흥시장분산)펀드 자금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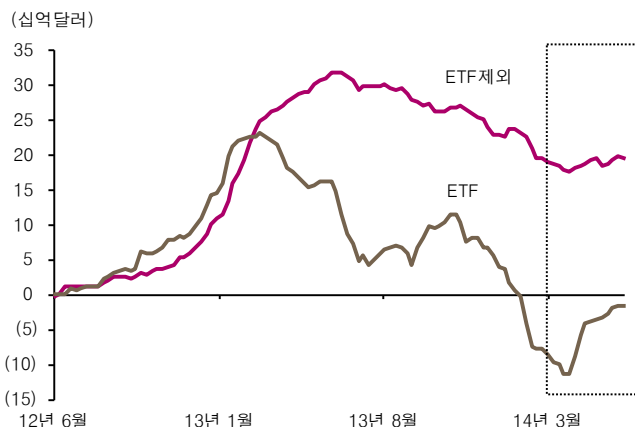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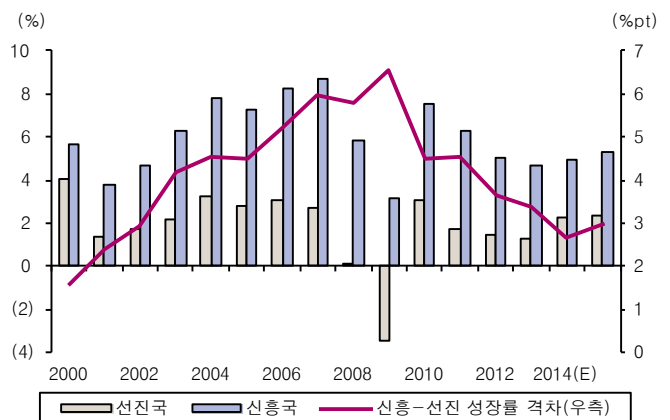


그림 2. 선진 및 신흥 경제성장률 격차



참고: 2012년 6월 이후 누적

자료: IMF

자료: EPFR

이는 이미 작년 5월 미 연준의 출구전략 가능성이 부각되며 신흥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엑소더스로 신흥시장에 대한 매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신흥국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바탕인 것으로 판단한다. 게다가 2분기 들어 신흥국 환율 강세로 환차익까지 더해지며 현재 신흥국에 대한 투자センチメント가 우호적인 환경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신흥시장 매수 여건이 지속된다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패시브 형태의 바스켓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GEM펀드의 한국비중은 약 12%(2014년 4월 기준)로 중국(16%) 다음으로 높다. 특히 그 중 대표 펀드인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TF의 한국비중은 약 16%에 이른다(그림 3). 따라서 신흥시장 분산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경우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3월 중순 이후 이어지는 외국인 자금 유입은 바스켓형태의 매수인 프로그램 비차익순매수의 힘이 컸다(그림 4).

투자전략: 대형주 > 중소형주

결국 한국시장에 대한 차별적 매수가 아닌 이머징 증시 전반에 대한 바스켓 매수가 한국 증시 매수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시장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펀드는 대부분 MSCI와 같은 지수를 벤치마크로 추종하고 있는데, MSCI KOREA 지수에 편입된 종목 100여개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통 바스켓으로 시장을 매수할 경우 시가총액에 따라 시장을 산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신흥시장 분산펀드로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대형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TF 내 국가보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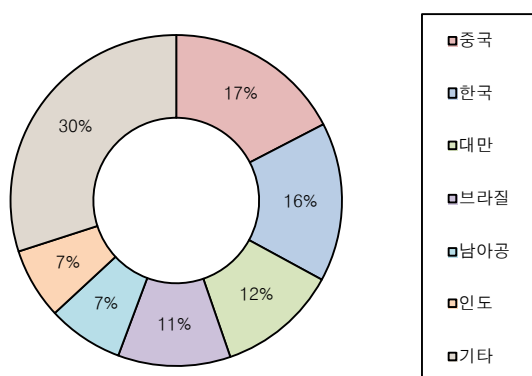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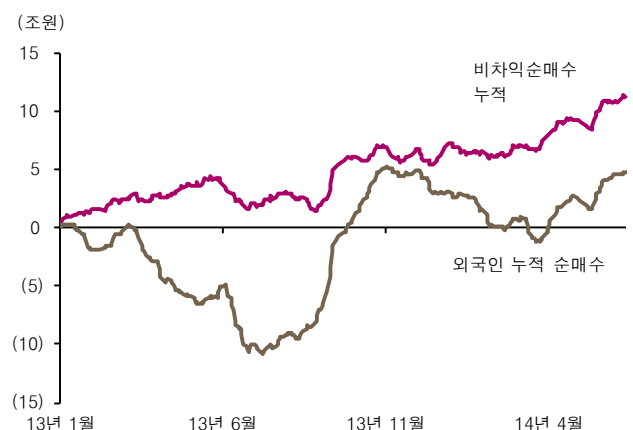


그림 4. 코스피 비차익순매수 유입 추이



참고: 6월 10일 기준
자료: BlackRock

참고: 2013년 이후 누적
자료: 한국거래소

이남룡

nr.lee@samsung.com

02 2020 7035

삼성 TOP 10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2014. 1. 2 ~ 6. 12)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KOSPI	초과 수익률
	+7.93%	+0.02%	+7.92%p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삼성물산 (000830)	73,700	- 그룹 관계사 상장 발표 이후 계열사 보유지분 가치 재평가 기대 - 2분기 이후 이익 모멘텀 상승과 현금흐름 개선의 가시성 부각	6/11	(-0.9%)
삼성전자우* (005935)	1,079,000	- 이익 전망치 하락보다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에 초점을 둔 매수 기회 - 최근 주가 조정으로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평균 수준으로 회귀	5/29	(-1.5%)
CJ제일제당 (097950)	342,000	- 원화 강세로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 부각 - 바이오부문 중국 라이선스 가격 반등 기대감에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	5/2	(+10.3%)
아모레퍼시픽 (090430)	1,460,000	- 수익성 높은 면세점과 온라인 채널 판매 증가로 국내 실적 개선세 - 높은 브랜드력 기반 중국 화장품 시장 M/S 증가로 해외 수출 본격화	3/27	(+18.2%)
코웨이* (021240)	81,000	- 중국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공기청정기 수출 고성장 전망 - 국내 렌탈 사업 호조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지속	2/27	(+16.6%)
KCC (002380)	650,000	- 향후 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전망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시 동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가치 부각	2/18	(+28.2%)
현대모비스 (012330)	285,500	- 현대차그룹 신차 사이클 도래 및 Capa 확대의 최대 수혜주 - 자동차산업 상승사이클 진입으로 완성차대비 주가 프리미엄 확대 예상	1/2	(-0.6%)
SK하이닉스 (000660)	47,400	- 메모리 시장 과점화 · 제한적인 추가증설 등으로 업황 사이클 상승 전망 - 플레이스테이션 판매호조로 소니향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 부각	1/2	(+30.0%)
NAVER (035420)	795,000	- 게임 · 광고사업 등으로 5년내 전체 매출 50%이상이 라인에서 발생 - 경쟁사 위챗 약 40~50조원 평가 감안시 11조원 수준 라인가치 저평가	1/2	(+8.5%)
한국전력 (015760)	38,850	- 13년 9.4% 전기료 인상과 원화 강세 진행으로 2014년 실적 개선 전망 -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내 원전비중 증가로 저비용 발전량 증가 예상	1/2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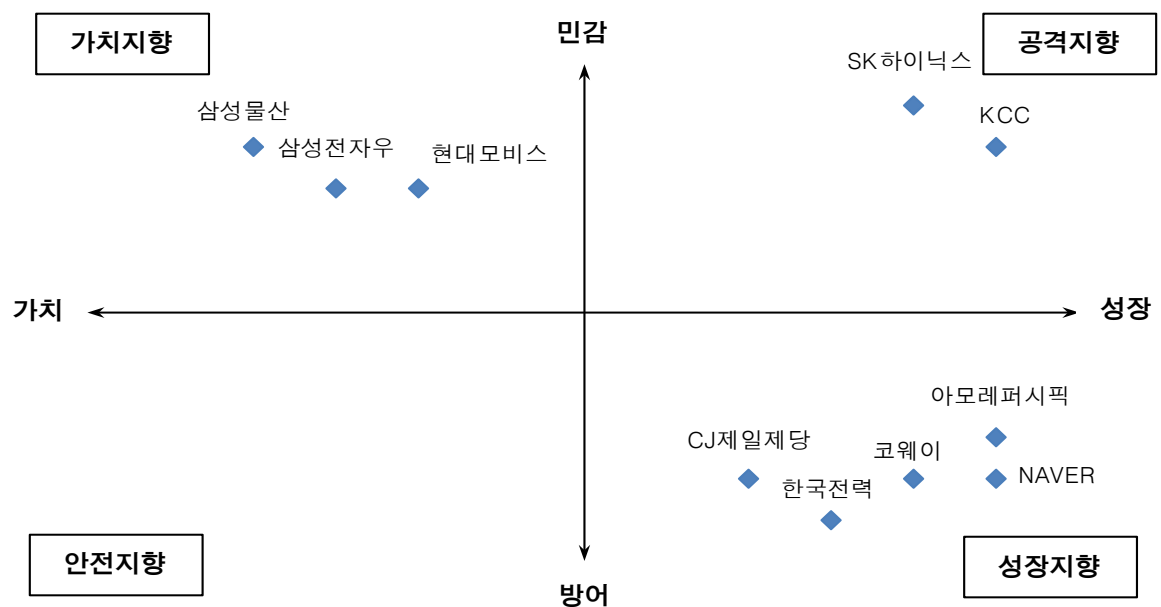
참고: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한국전력

ETF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KODEX삼성그룹 (102780)	6,160	- 개별 종목보다 그룹주 전체에 대한 최적 접근 - 이동평균선 결집후 정배열 진입 패턴 완성으로 기술적 매수타이밍 발생	5/16	(+1.2%)

참고: 추천 ETF는 TOP-10 포트폴리오와는 별개로 운용되어 수익률 산정에는 반영이 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종목	가치	성장	모멘텀	민감주	방어주	금리민감	환율민감
삼성물산	○		○	○		○	
삼성전자우	○		○	○			○
CJ제일제당		○			○		○
아모레퍼시픽		○			○		○
코웨이		○			○		
KCC		○	○	○		○	
현대모비스	○			○			○
SK하이닉스		○		○			○
NAVER		○			○		○
한국전력		○			○	○	○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을 가치/성장/모멘텀, 민감주/방어주, 금리민감/환율민감 등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투자자별 성향에 맞는 종목 선택을 위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는 차트 분석상 단기적인 매매를 위한 가격대로서 절대적인 밴드는 아닙니다. 단기 수급 동향 및 돌발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길 권고합니다.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

종목	트레이딩 밴드	근거
삼성물산	67,000 ~ 82,000	-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67,000원선을 중장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82,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삼성전자우	1,050,000 ~ 1,250,000	-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및 직전 박스권 상단의 지지력 견고 -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로 설정
CJ제일제당	310,000 ~ 380,000	- 주봉 120주선 지지력이 확인되는 31만원 전후를 지지선 설정 - 전고점 및 2015년 예상실적 기준 17배 수준 38만원선을 상단 설정
아모레퍼시픽	1,300,000 ~ 1,600,000	- 중장기 지지선인 60일 이동평균선 위치 구간인 130만원이 바텀 -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160만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로 설정
코웨이	80,000 ~ 100,000	- 60일 중장기 이평선 지지 구간이자 예상 실적 대비 20배 구간이 하단 -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이자 예상실적 대비 25배 구간이 저항선
KCC	600,000 ~ 750,000	- 직전 박스권 돌파 가격대이자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인 60만원이 하단 - 20일 이격도 120% 구간이자 예상 실적 대비 28배인 75만원 목표
현대모비스	270,000 ~ 320,000	- 60주선 및 120주선 지지 구간 및 PER밴드 저점 가격대가 하단 밴드 - 중기 박스권 상단 라인이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 의미 있는 저항선
SK하이닉스	43,000 ~ 51,000	- 2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 위치구간이자 최근 2개월 매물대구간이 하단 - 20일 이격도 110% 구간이자 올해 예상실적 대비 10배 가격이 목표
NAVER	700,000 ~ 850,000	- 전저점 라인 및 6개월 매물대 집중 구간인 70만원 초반이 단기 하단 - 연중 고점 라인이자,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90만원 단기 상단
한국전력	37,000 ~ 43,000	- 120일선 이동평균선 위치 라인이자 PBR 0.5배 수준이 하단 구간 - 전고점 구간이자 최근 3년내 PBR 밴드 상단 구간이 의미있는 저항선

홍승표

seoungpyo.hong@samsung.com
02 2020 7038

모멘텀 플레이 유망 종목

종목	투자 포인트	추천일(수익률)
NEW 삼화페인트* (000390)	- 건축물 준공면적 확대 및 친환경 페인트 사용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세 지속 - 2013년 급증했던 조선 수주 물량의 발주 진행으로 조선향 페인트 수요 증가 - 올해 예상순이익은 392억원으로 PER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6/13 (신규)
NEW 국보디자인* (066620)	-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국내 1위 업체로 리모델링 수요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 부각 - 2014년 말 예상 순현금은 650억원 수준으로 현시가총액의 50%이상 보유 - 올해 예상순이익은 170억원 수준으로 PER7.7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6/13 (신규)
동서* (026960)	- 국내 커피믹스 분야 1위 기업으로 맥심과 카누로 대표되는 파워브랜드 소유 - 매년 1,600억원 전후의 안정적인 순이익을 바탕으로 3%중반대의 시가배당을 유지 - 올해 예상순이익은 1,400억원 수준으로 PER11.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5/29 (+2.2%)
LG화학* (051910)	- 중국 구매관리자 지수 개선과 화학 업황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모멘텀 부각 - 2분기 중국 편광필름 공장 증설로 정보소재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부각 - 올해 예상순이익은 14,200억원 수준으로 PER11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5/20 (+2.8%)
세아베스틸* (001430)	- 특수강 시장 성수기인 2분기에 원재료인 철강 스크랩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 매년 2,5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3%중반대의 시가배당을 유지 - 올해 예상순이익은 1,280억원 수준으로 PER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5/9 (+15.2%)
한양이엔지* (045100)	- 주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화성 17라인 투자와 A3라인 투자 가시화로 수익성 개선 기대 - 반도체 분야의 특수 설비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우주항공 분야 설비로 시장확대 진행중 -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은 230억원 으로 PER 5.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5/2 (-2.8%)
경창산업* (024910)	- 자동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차 및 현대오토텍으로 납품 -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선전 및 자동변속기 장착률 상승의 수혜 지속 - 올해 예상 영업이익 370억원 기준 PER 6.3배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3/27 (+2.5%)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편입 제외 코멘트

라이온캠텍과 태영건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편입 제외합니다. 기존의 인조대리석 수출 증가 모멘텀(라이온캠텍)과 안정적인 우량 자산을 보유(태영건설)한 자산주라는 투자포인트는 유효합니다. 대안 종목으로는 고부가 페인트 매출 증가 및 조선향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삼화페인트와 국내 리모델링 시장 성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국보디자인을 신규 추천합니다.

삼성 Top 10 유니버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P/E (배)	P/B (배)	수익률 (%) 1개월
			2013	2014(E)	전년대비 (%)			
1	삼성전자	232,771	36,785	35,648	(3.1)	8.0	1.3	1.8
2	SK하이닉스	33,728	3,380	4,592	35.9	9.2	1.8	14.5
3	현대모비스	27,793	2,924	3,178	8.7	7.2	1.1	(0.4)
4	NAVER	26,205	524	824	57.1	37.5	8.8	10.6
5	한국전력	24,940	1,519	5,411	256.2	9.4	0.5	(5.2)
6	삼성물산	11,728	433	657	51.7	21.8	1.0	7.9
7	아모레퍼시픽	9,252	370	445	20.3	28.2	3.3	1.6
8	KCC	6,838	232	320	38.3	25.2	1.3	14.4
9	코웨이	6,247	339	391	15.4	20.5	4.9	(2.6)
10	CJ제일제당	4,708	345	4,975	1,339.9	18.5	1.5	5.6
11	현대차	59,666	8,315	8,504	2.3	7.1	1.0	(2.0)
12	LG화학	19,613	1,743	1,783	2.3	13.1	1.5	9.3
13	LG	11,329	1,154	1,290	11.8	10.0	0.9	15.1
14	LG디스플레이	10,573	1,163	1,146	(1.5)	14.7	0.9	7.3
15	현대글로비스	9,788	637	693	8.8	17.7	3.3	4.6
16	SK C&C*	8,250	225	262	16.3	17.3	2.4	6.5
17	고려아연	6,935	599	687	14.8	12.7	1.4	10.7
18	한라비스테온공조	4,943	364	402	10.6	14.5	2.7	5.2
19	호텔신라	3,512	87	135	55.6	28.2	4.2	0.7
20	두산중공업	3,418	958	957	(0.1)	13.6	0.6	0.0
21	파라다이스	3,347	134	147	9.4	24.1	3.6	0.0
22	에스원	3,089	129	194	49.9	22.6	2.8	4.2
23	SK네트웍스	2,497	241	258	7.1	11.9	0.9	10.1
24	대상	1,651	1,558.2	1,687	8.3	13.7	2.0	10.4
25	CJ E&M	1,640	58	101	72.6	21.0	1.2	(12.5)
26	넥센타이어*	1,604	177	203	14.7	10.7	1.6	10.6
27	동서*	1,585	51	N/A	N/A	N/A	N/A	1.0
28	오뚜기*	1,512	105	118	12.3	14.5	1.7	5.9
29	세아베스틸*	1,137	144	152	5.7	9.5	0.7	13.4
30	태영건설*	453	90	N/A	N/A	N/A	N/A	(10.6)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밸류에이션 지표는 12개월 선행 기준 / 계열사 - 삼성전자, 에스원, 삼성물산, 호텔신라 / 1% 이상 지분 보유 - 에스원, 호텔신라 /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한국전력 / 상기 종목은 시가총액순으로 나열

* 음영 처리된 10개 종목은 현재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유망 종목으로 관리하는 유니버스입니다.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e.trading@samsung.com

02 20207306

글로벌 Best 11

글로벌 Best 11 누적 수익률 (2014. 1. 2. ~2014. 6. 11.)				글로벌 Best 11	MSCI World& China	초과 수익률
				-2.32%	+2.28%	-4.60%pt
종목 (티커)	시장	주가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몬산토 (MON)	미국	USD 120.75	- 4년째 시장점유율 및 제품 Mix의 개선이 동반되는 성장이 예상 - 경쟁사 대비 우월한 Bio기술은 동사의 장기 성장 기반	5/26	(+0.7%)	
미국 산업재 ETF (XLI)	미국	USD 55.05	- GE, 보잉,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 3M, 유니온퍼시픽 등 대표 산업재 보유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 강세 지속 전망	5/9	(+3.9%)	
AT&T (T)	미국	USD 34.81	- 연간 배당률이 5%를 상회하는 미국 대표 배당주 - 유선전화 서비스 종료 및 고마진 무선 서비스 사업 성장 전망	4/16	(-2.4%)	
스타벅스 (SBUX)	미국	USD 74.80	- 안정적 매출의 미국과 더불어, 중국·인도 등 해외 매출 성장세 기대 - 단순 커피 프랜차이즈를 넘어 종합 F&B 업체로의 변화를 모색	3/26	(+0.3%)	
UPS (UPS)	미국	USD 102.50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e-commerce 거래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 - IT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인건비 및 기타비용 감소 전망	3/26	(+5.0%)	
미세린 (ML)	프랑스	EUR 92.21	- 최근 캐나다 공장을 정리하는 등 공장수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 도모 - 저평가 매력 부각되고 있으며 타이어 매출의 안정적 성장 기대	3/26	(+3.4%)	
중국왕왕식품 (151)	홍콩	HKD 10.58	- 중국 1가구1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유제품 시장 내 가파른 성장 예상 - 중국 정부의 내수주 및 서비스 산업 성장 추진의 수혜 기대	2/21	(-6.5%)	
엑스 모빌 (XOM)	미국	USD 101.95	- 경쟁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및 ROE에도 밸류에이션저평가 - 말레이시아 2억 큐빅피트 규모의 신규 천연가스 유전에서 생산 시작	1/27	(+7.5%)	
구글 (GOOGL)	미국	USD 567.50	- 적자 사업부인 모토로라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로봇업체 인수합병 및 팍스콘과의 제휴를 통한 로봇사업 본격 진출	1/2	(+1.2%)	
존슨앤존슨 (JNJ)	미국	USD 103.32	- 연이은 신약 출시로 제약 사업부문 매출 호조세 지속 - 미국 FDA로부터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 승인되며 기대감 상승	1/2	(+12.8%)	
폭스바겐 (VOW3)	독일	EUR 196.35	- 전체 매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매출 증가 지속 - 리더당 111km를 주행하는 XL1 개발로 연비관련 기술 우수성 입증	1/2	(-3.8%)	

참고: 편입비중은 균등하게 배분. 벤치마크 산출에 대한 시차 관계상 증가는 전일종가로 기록

글로벌 ETF 5

종목 (티커)	주가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MarketVectors Agribusiness ETF (MOO)	USD 54.69	-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농업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농기업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신젠타, 몬산토, 디어, 아치 대니얼스 등 - 글로벌 기상이변과 식량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농업 기술 발전의 수요 증가 기대	5/27	(-0.1%)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USD 92.89	-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시스코시스템즈 등으로 IT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대다수 글로벌 IB는 2014년 미국시장에서 매수 유망한 섹터로 IT 섹터 추천	1/3	(+7.2%)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XLI)	USD 55.05	- 미국 내 산업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GE,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3M, 유니온퍼시픽 등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가 2014년에도 강세를 지속할 전망	1/3	(+6.5%)
iShares Europe (IEV)	USD 50.06	- 유럽 대표종목 지수인 S&P Europe 350지수를 추종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네슬레, HSBC홀딩스, 노바티스, 로슈, 보다폰 등 -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및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대표적 유럽 투자 ETF인 IEV 강세 지속 전망	1/3	(+7.9%)
iShares MSCI Europe Financials (EUFN)	USD 26.14	- 유럽 금융섹터 투자 ETF로 비교적 최근 설정(2010년 2월) - 주요 보유종목은 HSBC홀딩스, 방코산탄데르, 알리안츠, BNP파리바 등 - 유로존 경기 회복과 함께 유럽 금융주가 강세를 주도할 전망 - 그리스, 스페인 등의 부실 금융기관 주가는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우세	1/3	(+7.0%)

참고: 티커 QQQ, XLI는 미국 기업 대상의 ETF. 티커 IEV, EUFN은 유럽 기업 대상의 ETF로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수급 빅매치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Top-Pick

종근당(A185750)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아이센스(A099190)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기관 6일 연속 순매수

기관 순매수 Top-Pick

금호석유(A011780)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씨젠(A096530)



기관 2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Top-Pick

한국전력(A015760)



외국인 2일 연속 순매수

테스(A09561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참고: 상기에서 제시한 종목들은 매수추천 의미가 아닌 뉴스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 특징종목을 나열한 것이며, 시간외대량매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삼성생명	304	1	한국타이어	410
삼성전자	238	2	한전KPS	220
현대차	187	3	삼성전자우	154
GS건설	176	4	현대제철	141
한국전력	158	5	현대중공업	126
엔씨소프트	112	6	OCI	92
LG디스플레이	111	7	롯데케미칼	84
삼성SDI	111	8	SK이노베이션	78
SK하이닉스	98	9	삼성중공업	78
POSCO	92	10	코웨이	72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서울반도체	59	1	다음	77
원익IPS	39	2	루멘스	52
바이오페이스	30	3	아프리카TV	37
에스엠	28	4	CJ E&M	3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4	5	파라다이스	26
삼천리자전거	10	6	실리콘웍스	23
테스	9	7	블루콤	18
이라이콤	7	8	CJ오쇼핑	15
위닉스	7	9	게임빌	12
제우스	7	10	동서	10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한국타이어	531	1	삼성전자	772
KODEX 인버스	291	2	GS건설	252
한전KPS	210	3	KODEX 레버리지	216
현대제철	205	4	현대차	195
NAVER	170	5	기아차	157
만도	113	6	SK하이닉스	156
롯데케미칼	106	7	한국전력	155
금호석유	102	8	POSCO	145
한국가스공사	75	9	삼성중공업	139
현대중공업	73	10	삼성SDI	103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다음	71	1	한스바이오메드	1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3	2	코나아이	14
컴투스	21	3	KG이니시스	12
매일유업	20	4	이라이콤	10
게임빌	15	5	서울반도체	9
아이센스	12	6	파트론	8
코오롱생명과학	11	7	솔브레인	7
씨젠	11	8	조이시티	7
바이오랜드	11	9	성우하이텍	7
메디톡스	9	10	로엔	6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주요종목

유가증권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NAVER	170	1	한국항공우주	21
한국가스공사	75	2	제일모직	14
넥센타이어	32	3	종근당	11

코스닥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3	1	원익IPS	39
아이센스	12	2	삼천리자전거	10
바이오랜드	11	3	위닉스	7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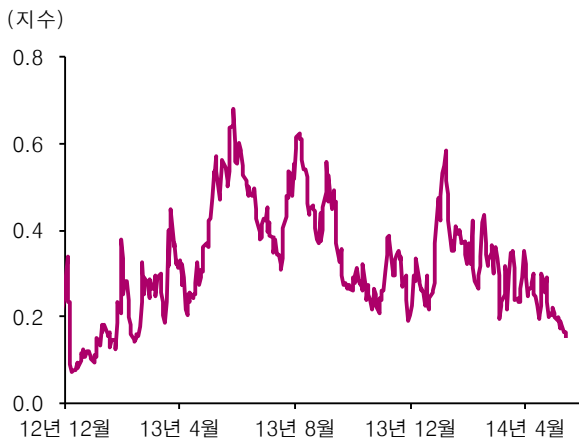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미 10년물 국채 금리 2.6% 진입하며 반등

- 미 연준이 상당기간 금리를 중립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미 채권 시장 강세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금리는 차익실현 매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2.6%선까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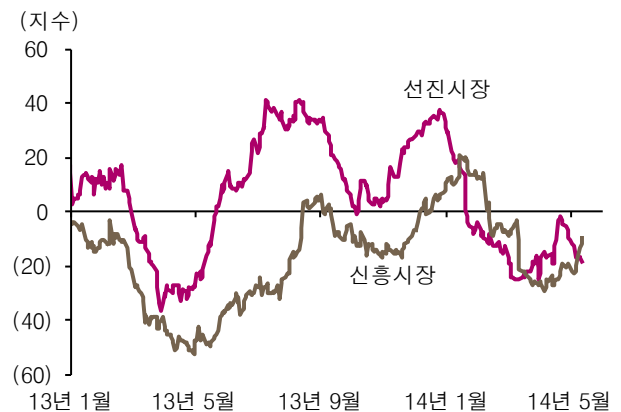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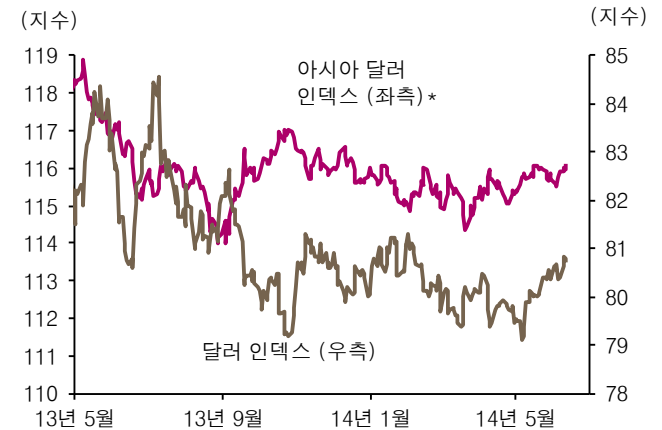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조: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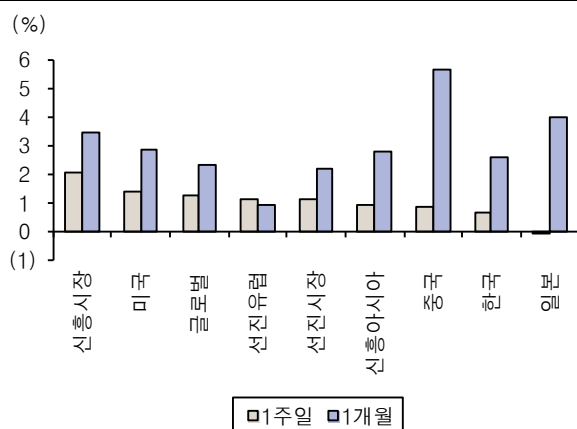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참조: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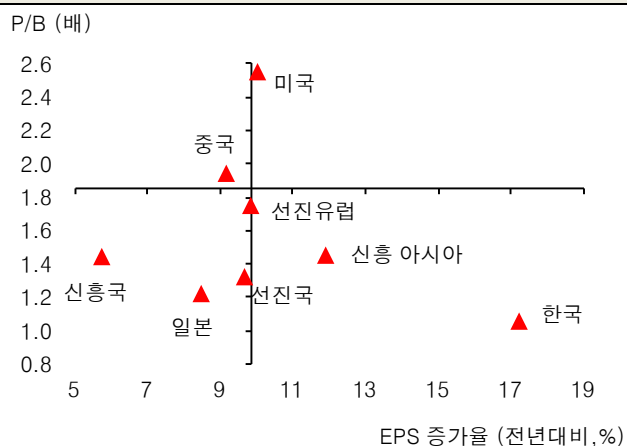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동향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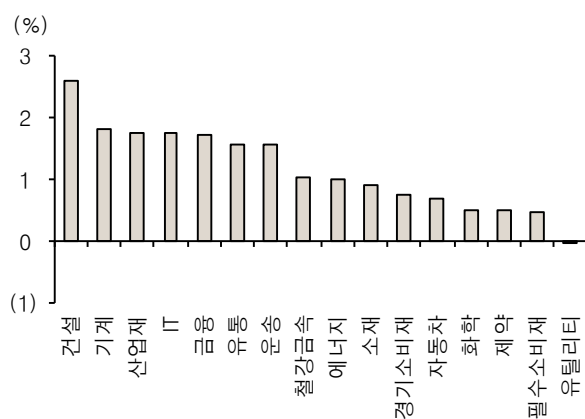
참고: 6월 4일 ~ 6월 1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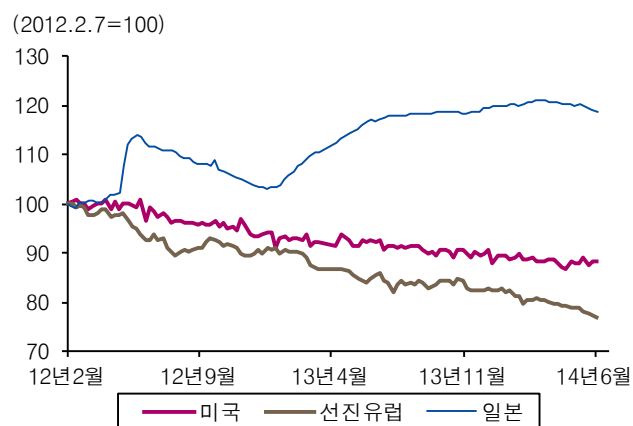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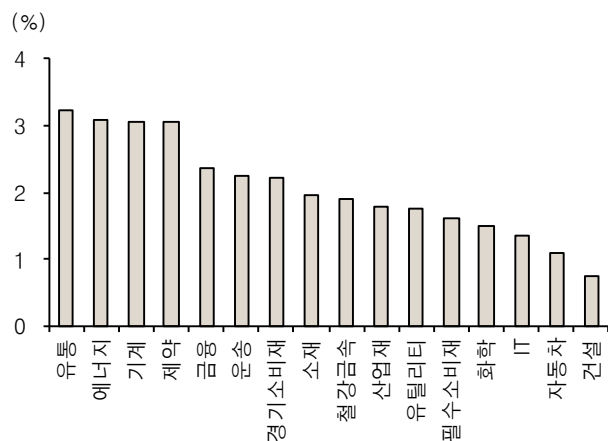
참고: 6월 4일 ~ 6월 1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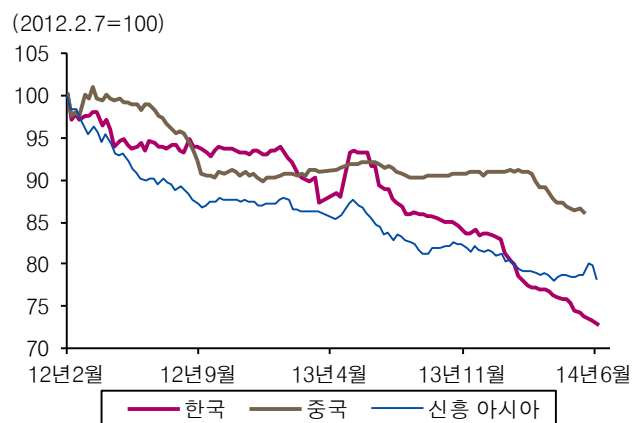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6월 4일 ~ 6월 1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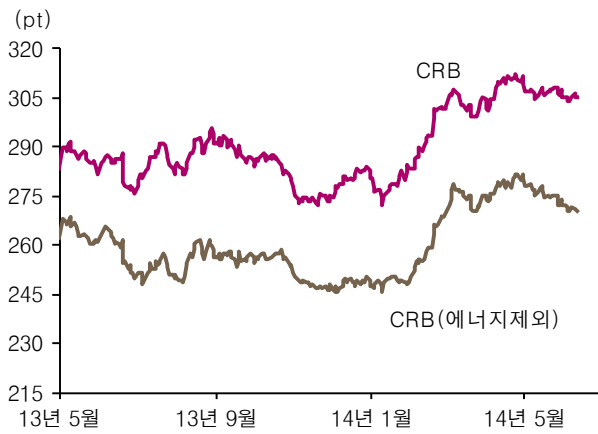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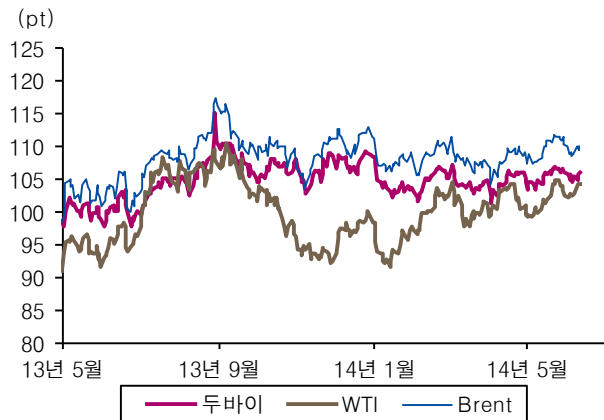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TR/Jefferies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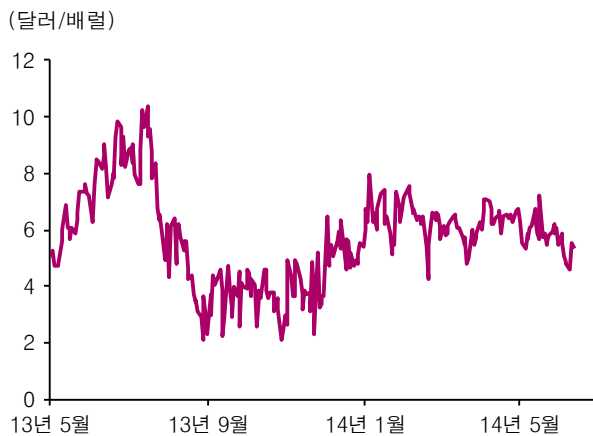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주: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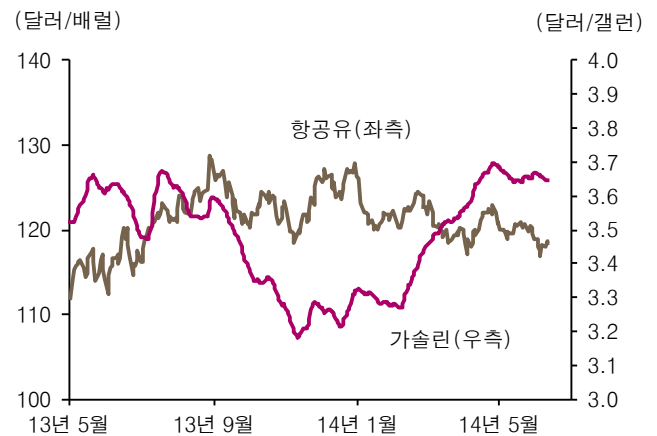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싱가포르 정제마진



자료: Thomson Reuters

항공유 &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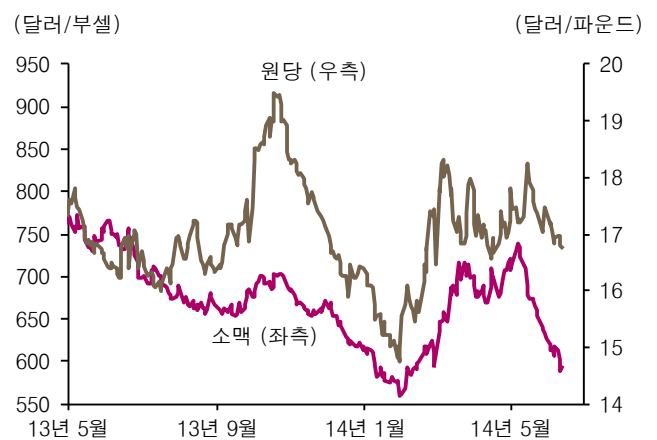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 옥수수



자료: Thomson Reuters

소맥 & 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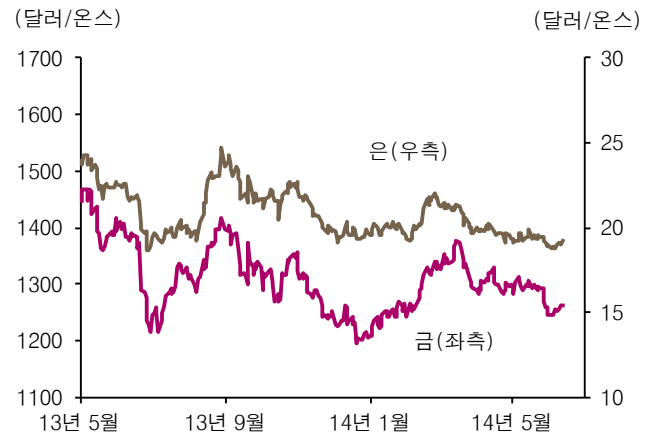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LME(비철금속)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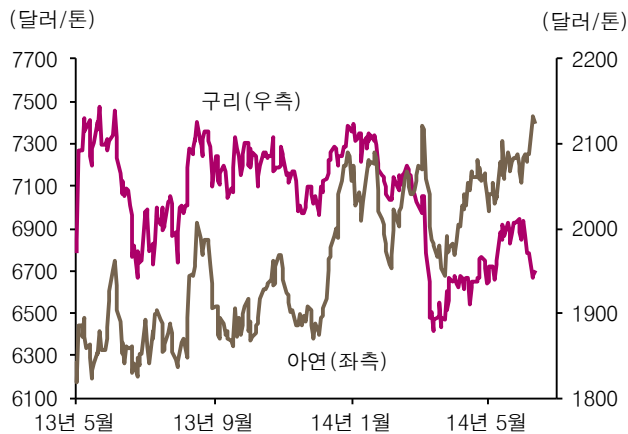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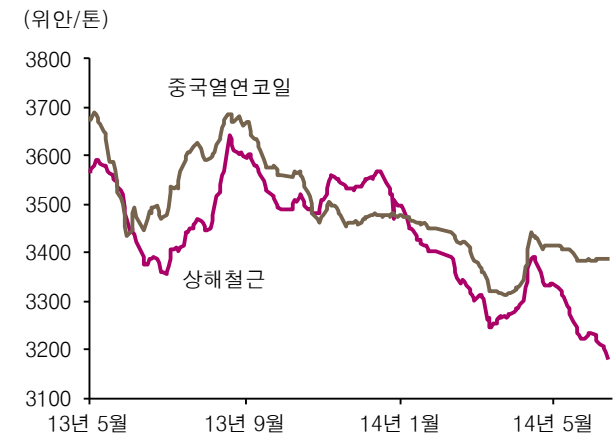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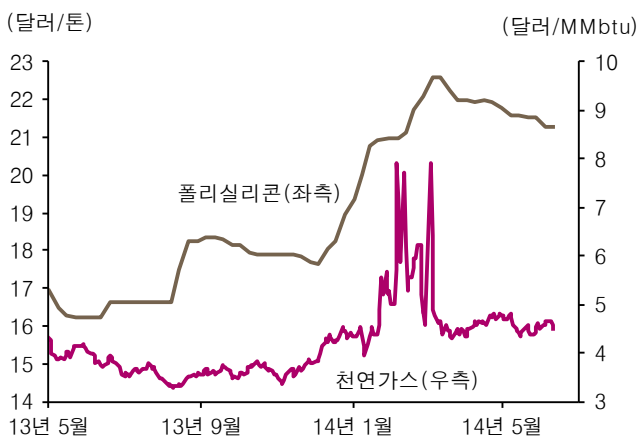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철강 유통가격



자료: Bloomberg

폴리실리콘 &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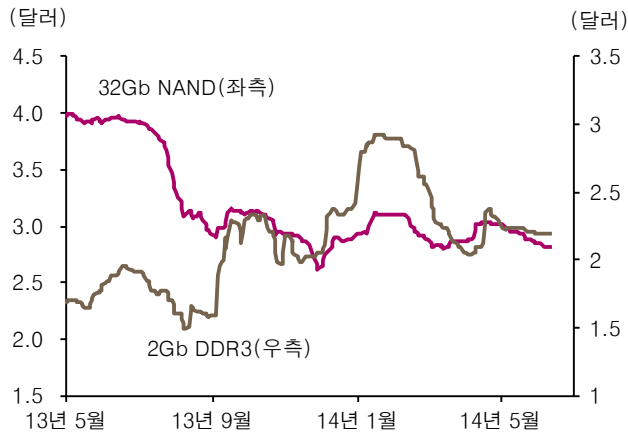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PVinsights

석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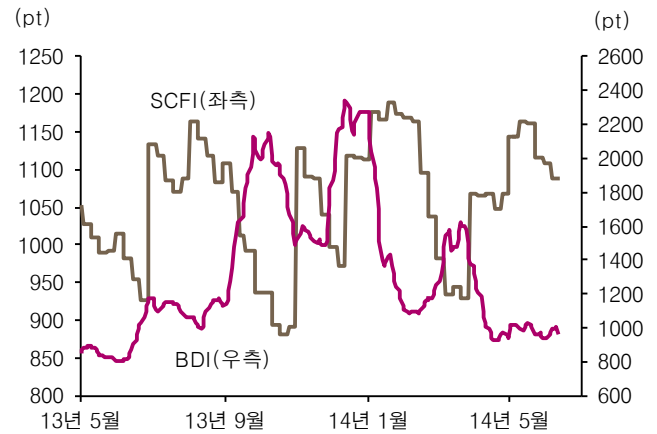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 & NAND 현물 가격



자료: DRAmExchange

해상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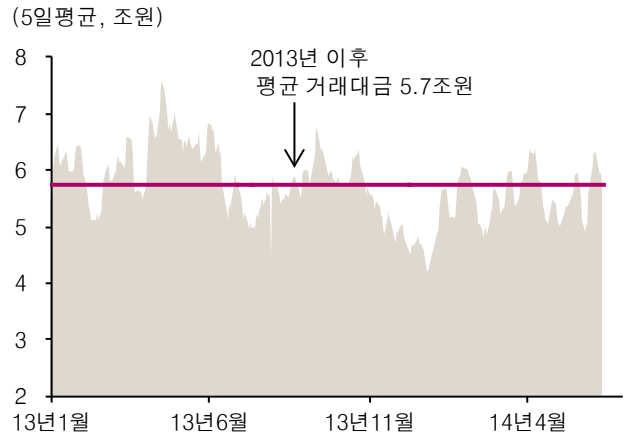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항운교역소, Thomson Reuters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증시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6/9	10	11	12	13
(일본) 1분기 GDP(최종, 전년대비) (1분기 1.6%/E 1.4%/P 1.5%)	(중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5월 2.5%/E 2.4%/P 1.8%) 5월 생산자물가지수(전년대비) (5월 -1.4%/E -1.5%/P -2.0%) 5월 통화공급 M2(전년대비) (5월 -/E 13.1%/P 13.2%)	(미국)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 (6월1주 10.3%/E -/P -3.1%) 5월 월간 재정수지(십억달러) (5월 -130.0/E -130.0/P -138.7) (한국) 5월 실업률 (5월 3.7%/E 3.6%/P 3.7%)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6월1주 -/E 309/P 312) 5월 소매판매(전월대비) (5월 -/E 0.6%/P 0.1%) (한국)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6월 2.50%/E 2.50%/P 2.50%) 6월 선물 · 옵션 만기일 (유럽) 4월 산업생산(전월대비) (4월 0.8%/E 0.5%/P -0.4%)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전월대비) (5월 -/E 0.1%/P 0.6%) 6월 미시간대 기대지수 (5월 -/E 83.0/P 81.9) (중국) 5월 고정자산투자(전년대비) (5월 -/E 17.2%/P 17.3%) 5월 소매판매(전년대비) (5월 -/E 12.1%/P 11.9%) 5월 광공업생산(전년대비) (5월 -/E 8.7%/P 8.7%)
16	17	18	19	20
美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4월 총자본흐름 5월 광공업생산 6월 NAB주택시장지수 유 5월 소비자물가지수	美 5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 주택착공건수 5월 건축허가 유 6월 ZEW경기전망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6월 FOMC 통화정책회의 1분기 경상수지 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월 선행지수	유 6월 소비자물가지수
23	24	25	26	27
美 6월 마켓 제조업PMI 5월 기존주택매매 中 6월 HSBC제조업 PMI 유 6월 마켓 제조업PMI	美 4월 FHFA주택가격지수 6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 신규주택매매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5월 내구재주문 1분기 GDP 1분기 개인소비 1분기 GDP물가지수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월 개인소득 5월 개인소비지수	韓 5월 경상수지 · 상품수지 5월 산업생산 5월 광공업생산 유 6월 경기기대지수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해외주식 바로 알기

해외주식 매매 프로세스

프로세스	내용
해외주식 약정 등록	• 삼성증권 종합계좌에 해외주식 약정 등록
입금 / 환전	• 원화 입금의 경우 거래국가 통화로 환전 • 환전 가능시간: 09:00 ~ 16:00 (공휴일 불가) ※ 외화 입금시 환전 필요없음 (단, 외화 현금 지점 수납은 불가)
주문 (매수 / 매도)	• 온라인 매매 가능국가: 미국 · 홍콩 · 일본 • 유럽 및 기타국가: 오프라인 주문만 가능
환전 / 출금	• 원화 입금시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 외화출금 원칙
양도세 신고	• 매도한 해의 다음년도 5월에 자진신고 (ex. 2013년 매도시 2014년 5월에 신고) • 25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 (주민세 포함) 양도소득세 부과

거래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한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외하면 해외주식이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은 없다. 삼성증권에서는 환전 가능시간(오전 09:00~오후 4:00)에 전화나 HT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환전 가능하며, 환전 이후 주문 역시 논스탑으로 가능하다.

해당국가의 통화로 직접 입금했을 경우에는 환전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외화입금의 경우 매매가 끝난 이후 출금 역시 외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증권에서는 원화 입금시에는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에는 외화 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주식전략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4층 주식전략팀 02-2020-8000